

朱熹 堂室記 初探

李 聖 浩*

< 目次 >

- | | |
|--------------------|-----------------|
| I. 緒論 | IV. 朱熹 堂室記 主題分析 |
| II. 朱熹 堂室記 概況 | 1. 內面修養 2. 人物稱揚 |
| III. 朱熹 堂室記 特色—議論性 | V. 結論 <참고문헌> |

I. 緒論

朱熹는 字가 元晦(仲晦라고도 함), 號가 晦庵이다. 宋 高宗 建炎 4년(1130)에 태어나 宋 寧宗 慶元 6년(1200) 享年 71세로 세상을 마쳤다. 그는 비록 祖籍이 徽州 婺源이지만, 태어난 곳은 福建의 尤溪이고 또 장기간 복건의 崇安·建陽 등에서 講學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의 학파를 閩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宋代理學의 集大成者요 중국 학술사 상 불후의 사상가 중의 한 사람이다.

한편 그는 文學家이자 文學研究家이기도 하였으니, 《詩經》과 《楚辭》를 연구하여 《詩集傳》과 《楚辭集注》를 지었고 韓愈 文集을 교감하여 《韓文考異》를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詩文 모두에 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 建國大學校 中文科 講師

시와 문학비평에 비해 산문은 사실 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의 <朱熹 山水遊記 小考>¹⁾에 이어 그의 산문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堂室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것의 의론성과 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장차의 그의 산문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한 시금석으로 삼고자 한다.

II. 朱熹 堂室記 概況

記는 事實의 記錄 즉 紀事의 문장이다.²⁾ 그 기원은 <書經>의 <禹貢>·<顧命> 등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盛함은 唐代에 이르러 韓愈·柳宗元 등의 古文家들이 창작하면서 부터 이다. 하지만 이 때부터 記에는 議論이 점점 加해지고, 마침내는 宋代에 이르러 議論 中心의 記가 다량으로 산생되게 된다. 그리고 記는 다른 散文體에 비해 그 대상 영역이 대단히 雜博하기 때문에 清代에 이르러서는 文體 分類를 함에 雜記類로 처리하여 다루게 되는데 姚鼐와 曾國藩 등이 그러하였다. 중국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雜記類는 雜事를 기록한 것이다. 經典에서는 <禮記>의 <投壺>·<深衣>·<內則>·<少儀>, <周禮>의 <考工記>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後世의 古文家들은 宮室을 修造하면 그것을 기록하였고 山水를 유람하면 또 그것을 기록하였는 바, 器物 및 瑣事를 기록한 것과 더불어 모두 여기에 속한다.(雜記類, 所以記雜事者. 經如<禮記><投壺>·<深衣>·<內則>·<少儀>, <周禮>之<考工記>皆是. 後世古文家修造宮室有記, 遊覽山水有記, 以及記器物·記瑣事皆是.)³⁾

1) 《中國文學研究》11집.

2) (元人)潘昂霄 <金石例> 「記者, 紀事之文也。」徐師曾 <文體明辨序說·記>(長安出版社 臺灣 1978) 145쪽 재인용.

3) <經史百家雜鈔·序例>(岳麓書社, 1987년) 3쪽.

褚斌杰은 雜記文을 「臺閣名勝記」, 「山水遊記」, 「書畫雜物記」, 「人事雜記」 四類로 분류하였는 바⁴⁾, 중국번이 말한 宮室修築에 대한 記는 臺閣名勝記, 山水遊覽에 대한 記는 山水遊記, 器物에 대한 記는 書畫雜物記, 瑣事に 대한 記는 바로 人事雜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희의 堂室記는 바로 堂과 室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記로, 저빈길의 분류를 따른다면, 建築物에 대한 記를 포괄하고 있는 臺閣名勝記의 한 종류이다. 주희의 <名堂室記>는 자기가 몸소 命名하고 거처했던 紫陽書堂·韋齋·晦堂·敬齋·義齋 등의 堂室에 대한 기록인데 그 일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자양서당이라는 글자를 당신의 인장에 새겼었다. <중략> 그러나 감히 아버님의 뜻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삼가 당신의 인장에 새겨져 있던 바로써 내가 거처하던 廳事를 명명했다. (先君子 <중략> 嘗以紫陽書堂者刻其印章. <중략> 然不敢忘先人之志, 敬以其印章所刻榜其所居之廳事.)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또 늘 당신의 조급함이 도를 해함을 병되게 여기시어, 우계에서 尉로 계실 적에 옛 사람의 무두질한 가죽을 늘 차고 다님으로써 자기의 조급함을 다스리려 했던 뜻을 취하여 자기가 거처하던 廳事 동쪽 가의 室을 韋齋라고 이름했다. <중략> 내가 생각컨대,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집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나의 조급함은 아버님보다 더욱 심하여, 특히 아버님께서 경계하신 바를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취하여 침소에다 걸어놓고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아울러 자손들에게 보이는 바다. (先君子又每自病其下急害道, 尉尤溪時, 嘗取古人佩韋之義, 榜其廳事東偏之室曰韋齋, 以燕處而讀書焉. <중략> 憲惟, 先君子之志不可以不傳于家而憲之躁迫滋甚, 尤不可以忘先人之戒, 則又取而揭之於寢以自鞭策, 且示子孫.)

희당은 내가 燕居하는 곳이다. (晦堂者, 燕居之所也.)

晦堂 양 곁의 室들은 내가 한가로운 날 默坐하여 독서하는 곳인데 그 왼쪽 室을 이름 하여 敬齋라 하고 그 오른쪽 室을 이름하여 義齋라

4)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大學出版社 1992년) 352-377쪽.

했다.(堂旁兩夾室,暇日默坐讀書其間,名其左曰敬齋,右曰義齋.)⁵⁾

이처럼 평소의 公務執行과 燕居·讀書 등을 위한 堂室에 대한 記가 바로 堂室記인데, 이 기준에 근거하여 朱熹의 堂室記를 뽑아보면 <高士軒記>·<一經堂記>·<芸齋記>·<存齋記>·<牧齋記>·<歸樂堂記>·<通鑑室記>·<克齋記>·<味道堂記>·<盡心堂記>·<拙齋記>·<復齋記>·<江州重建濂溪先生書堂記>·<至樂齋記>·<怨齋記> 등 총 15편이다.

이를 堂室의 용도 즉 公務執行과 평소의 燕居하면서 讀書하는 곳으로 구분해보면 <盡心堂記>를 제외한 전 편이 後者 즉 이른바 書齋에 대한 記이다.

저작년대를 살펴보면 紹興(南宋 高宗 때의 年號) 년간의 작품으로 <一經堂記>(소흥26년, 서기 1156년)·<芸齋記>(소흥26)·<至樂齋記>(소흥26)·<怨齋記>(소흥27)·<存齋記>(소흥28)·<歸樂堂記>(소흥30) 등이 있고, 乾道(孝宗 때의 年號) 년간의 작품으로 <通鑑室記>(건도3년, 서기 1167년)·<克齋記>(건도8)·<味道堂記>(건도9)·<盡心堂記>(건도9) 등이 있으며, 淳熙(효종 때의 年號) 년간의 작품으로 <拙齋記>(순희3년, 서기 1176년)·<復齋記>(순희3)·<江州重建濂溪先生書堂記>(순희4) 등이 있다. <高士軒記>·<牧齋記>는 그 저작년대를 밝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⁶⁾

그리고 自作과 應酬로써 구분해보면 <高士軒記>·<牧齋記>를 제외한 모두가 다른 사람의 청에 응하여 지은 應酬文이다.

III. 朱熹 堂室記 特色——議論性

5) <名堂室記> 《朱子大全》(臺灣中華書局 1985)권78 5-6쪽

6) 이 중에서 <고사헌기>는 대략 그 년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明人 戴銑의 《朱子實記年譜》를 보면 「紹興二十三年秋七月壬寅, 之間安任, 《중략》 廡有燕坐之室, 更名曰高士軒,」라고 되어 있으니 <高士軒記>의 「更以爲高士軒」의 때는 소흥23년임을 알 수 있겠다. 다시 <고사헌기>로 돌아가보면 「更以爲高士軒而客或難予,」라고 하였고, 주희가 그 비난을 반박하니, 「客唯唯而退, 因書之壁以爲記,」라고 하였는데, 그 문맥으로 보건데 <고사헌기>의 작성은 改名에 바로 연이 어진 일임을 알 수 있겠으며, 또 주희의 應酬한 堂室記들을 보면 請者가 堂室을 命名하고 난 뒤 즉시로 記를 청하는 것으로 봐서, <고사헌기>는 소흥23년의 作으로 여겨진다.

앞에서 사실의 기록 즉 紀事를 본래 성격으로 하던 記가 唐代의 고문가들의 손에 이르러서는 의론이 점점 가해지고 宋代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議論 中心의 記가 다량으로 산생되었음을 말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 明人 吳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후세의 작자들은 진실로 한유의 <畫記>와 유종원의 여러 遊山記 등을 記의 正體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유의 <燕喜亭記>를 보건데 또한 그 안에 의론을 조금 실고 있고 유종원의 新堂과 鐵爐步를 기록한 작품에 이르러서는 議論의 말이 더욱 많다. 구양수와 소식 이후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의론으로써만 창작한 記가 있게 되었다.(後之作者, 固以韓退之<畫記>·柳子厚遊山諸記爲體之正. 然觀韓之<燕喜亭記>, 亦微載議論於中. 至柳之記新堂·鐵爐步, 則議論之辭多矣. 迨至歐蘇以後, 始專有以論議爲記者.)⁷⁾

이처럼 記體가 紀事 中心에서 議論 中心으로 나아간 까닭은, 생각컨데, 唐宋 이래 古文家들의 文章觀 즉 「文以貫道」, 「文以明道」, 「文與道俱」, 「文以載道」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이 있으니 즉 모든 記文이 모두 의론 중심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며, 紀事 중심의 記도 여전히 자신의 생명력을 가지고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朱熹 堂室記는 바로 전형적인 議論 中心의 記이다. 堂室 그 자체에 대한 記述은 한갓 副次的인 것에 불과하고 堂室의 名을 中心으로 한 議論 전개가 그 중심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堂室과 관련된 敘事는 一字도 찾아볼 수 없고 시종 議論의 말로써만 일관한 작품도 있으니 <牧齋記>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작품에서는 주희가 학업에 전념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自省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고, 이후로는 「貧而樂」하고 「爲仁之學」에 힘써 聖人の 경지에 이르고 말겠다는 자기의 결심을 밝혀 놓은 일종의

7) 《文章辨體序說》(長安出版社 臺北 1978) 41-2쪽.

자기 격려성의 글이다. 全文을 게재한다.

내가 이 敎齋를 지어 거처한 지가 3년이 되었지만, 일찍이 하루라도 飢寒이 위급하게 닥치리라는 근심으로 내 마음의 긴장을 풀어지게 한 적이 없었고, 여행의 수고로움과 질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여기에서 六經과 百家의 圖書을 하루라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의지의 專一함과 배우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이 이와 같았으니, 의당지혜는 더욱 밝아지고 학업은 더욱 진보되어야 할 터인데도 지혜는 더욱 혼미해지고 학업은 더욱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허물하여 생각해보니 飢寒이 위급하게 닥칠 것이라는 근심을 끼고서 성인의 門에 종사하였고, 또 여행의 수고로움과 질병에 대한 우려를 거기에 더하여 사물에 얽매임은 있었을 망정 優遊한 樂이 없어서 이치의 精微함을 탐색함에 있어서 다할 수가 없었고, 일의 是非와 古今의 成敗·興廢의 까닭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 상세함을 터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물며 古人の 학문이란 점점 涵養하는 것일 뿐인데, 진실로 일찍이 이것을 내 마음에 시행한 적이 없었고 몸에 둔 적도 없었다. 이와 같으니, 무릇 밤낮으로 힘써서 학업의 이루어짐을 바래고 도덕으로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고자 한 것이 가히 헛된 일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옛 군자는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마실 것으로도 處함이 태연하여 일찍이 그 마음을 動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그 말을 급급히 한 적도 없었으니, 그는 그의 끈공함이 나보다도 더 심하였을 터인데도 자기에게서 自得함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그 用心한 것이 아마도 나와는 달라서 었을 것이다. 孔子께서는 빈궁 하더라도 자기가 즐기는 바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시었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옛 학자들은 자기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학습하였다고 하시었다. 그러하였으니, 어찌 飢寒으로써 그 뜻을 움직였겠으며, 어찌 한갓 책이나 끼고 독서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말하였겠는가? 내 바야흐로 이것에 힘써 성인에 스스로 이르겠다. 이로 해서 그 所以를 述하고 벽에 그 말을 써서 記로 삼는다.(余爲是齋, 而居之三年矣. 飢寒危迫之慮未嘗一日弛於其心, 非有道路行李之勞疾病之憂則無一日不取六經百氏之書以誦之於茲也. 以其志之篤事之勤如此, 宜其智益加明業益加進, 而不知智益昏而業益墮也. 以是自咎, 故嘗間而思之, 夫狹其飢寒危迫之慮以從事於聖人之門, 而又雜之以道路行李之勞疾病之憂, 有事物之累, 無優遊之樂, 其於理之精微索之, 有不得盡, 其事之是非古今之成敗興廢之故考之, 有不得其詳矣. 況古人之學所以漸涵而持養之者, 固未嘗得施諸其心而措諸其躬也. 如此, 則凡所爲早夜孜孜以冀事業之成而詔道德之進者, 亦可謂妄矣. 然古之君子一簞食瓢飲而處之泰然, 未嘗有戚感乎其心, 而汲汲乎

其言者，彼其窮於當世有甚於余矣，而有以自得於己者如此，必其所以用心者或異於予矣。孔子曰貧而樂；又曰古之學者爲己。其然也，豈以飢寒者動其志，豈以狹策讀書者而謂之學哉。予方務此以自達於聖人也。因述其所以而書其辭於壁以爲記。⁸⁾

이처럼 주희의 당실기가 의론 중심의 작품이 된 데에는 마땅히 그 까닭이 있을 것인데, 생각컨대, 대략 두 가지 즉 당실기의 특성과 주희의 尙理精神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대저 名勝의 山水를 기록하면서 景物로 點綴하여 妙觀을 이루어 낼 때는 의론을 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廳·堂·亭·臺의 記에 의론을 가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슨 말로써 문장을 이루겠는가? 어찌 기둥 몇 개, 대들보 약간, 벽돌 얼마 등의 이야기로써 글을 이루 내겠는가? 아, 생각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凡記名勝山水，點綴景物，便成妙觀，可以不著議論，若廳堂亭臺之記，不著議論，將以何說撰成文字。豈棟若干，梁柱若干，瓦磚若干，便足以成文字乎。噫，不思之甚矣。)⁹⁾

라고 하여 廳·堂·亭·臺의 記에 의론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로 간주하였는데, 실로 그렇지 아니한가? 주희의 당실기에 의론이 가해진 데에는 이러한 당실기의 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도 의론의 기세를 더욱 盛하게 한 것은 아마도 주희의 尙理精神일 것이다. 주희는 理學家 무리의 정점에 있는 대학자이니 그의 尙理精神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文如其人」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의 當世의 학술상의 위치가 이렇게 높다 보니 그에게 당실기를 청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덧붙여 가르침을 청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제가 거처하는 저택의 동쪽 집입니다. 무릇 이 마룻대와 처마는 옛날 것에서 바꾼 것이 없고, 단지 창문을 새로 뚫어 어둡고 밝은

8) 《주자대전》 권77 7-8쪽

9) 陳玉卿 <蘇東坡 散文 疏探>(《中國語文學》10집) 111쪽 再引用.

것을 살펴서 이 室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어찌
가히 기록할 바이겠습니까? 단지 제가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은 愍의
說을 들어서 그것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此吾居第之
東築也。凡茲棟宇皆亡所改於其舊，惟鑿牕牖以候明晦焉而爲是室也。此亦
何所可記。願吾之所以望於夫子者，願聞愍之說而盡心焉耳。)¹⁰⁾

이러한 즉, 주희의 당실기가 의론 중심의 작품이 되는 것은 실로 당연하
지 않겠는가?

IV. 朱熹 堂室記 主題分析

朱熹 堂室記는 堂室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堂室 居住者를 위하여
써 준 것이다. 따라서 그 주제는 자연스럽게 居處者에 대한 內面修養과 稱
揚으로 귀결된다.

1. 內面修養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一經堂記>·<知樂齋記>·<芸齋記>
를 들 수 있다. 먼저 <一經堂記>를 보면

내가 들건데, 옛날의 배움은 특별히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부지
런히 힘써면서 德을 기르는 것일 뿐이었다. 經典을 읽고 설명함에서
그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극진히 하고자
해서 였다. 배움은 지식에서 시작되고, 오직 이치를 궁구하는 것만이
그것을 극진하게 할 수 있다. 지식이 극진해지면 뜻이 성실해지고 마
음이 바르게 되어 大學의 순서를 옮겨가면서 成達하는 것이 결코 어렵
지 않다. 이와 같은데도, 세상의 학자들은 한갓 章句를 읽고 설명하는
것에만 종사할 줄을 알 뿐이고 그 所以然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 진
실로 앞으로는 사물을 궁구하여 자기의 지식을 극진하게 하는 것으로

10) <愍齋記> 《朱子大全·別集》권7 5쪽.

써 부지런히 힘써면서 덕을 기르는 것의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저 어찌 밖에도 힘을 쓸 것인가?(予聞, 古之所謂學者非他, 耕且養而已矣. 其所以不已乎經者, 何也. 曰將以格物而致其知也. 學始乎知, 唯格物足以致之. 知之至則應誠心正, 而大學之序推而達之, 無難矣. 若此者, 世亦徒知其從事於章句誦說之間, 而不知其所以然者, 固將以爲耕且養者資也. 夫豈用力於外哉.)¹¹⁾

라고 하여, 學者라면 모름지기 「格物致知」로써 「耕且養」의 바탕으로 삼아야지, 한갓 章句를 읽고 설명하는 것에만 종사해서는 아니됨을 말하고 있다. 그럼 왜 章句의 誦說에만 종사해서는 아니되는가? 이렇게 할 뿐이면, 자기의 학문이 한갓 자기의 학식을 남에게 뽐내기 위한 것으로 전락되어 자기의 수양과는 전혀 무관하게 되고, 그리하여 오히려 교만함을 키워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知樂齋記>에서도

사람이 神明한 소이는 그 덕이 사물에 응하여 다함이 없는 마음 때문일 뿐이다. 옛날의 군자들은 배움을 시작할 때 부터 灑掃·應對·進退의 사이에 진력하고 안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었는데,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心氣가 平安하여 온화해지고 和樂해져 사물과 틈이 없게 되어, 관찰되는 모든 사물의 변화가 자기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하물며 書冊이 전하고 있는 바에는 伏羲·神農으로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간의 성현의 行事와 학문의 源奧, 是非와 得失, 理亂과 存亡·興廢의 까닭들이 포괄되어 갖추어지지 않은 바 없으니, 만약에 그의 미에 통하여 마음이 그것에 합치되기를 期必한다면, 그 가히 즐기면서 익히는 것이 어찌 또한 이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상의 학자들은 이런 것은 알지 못하고, 그 깊은 뜻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한갓 읽고 외우기에만 급급해 하니, 이 까닭에 지극한 말은 막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조려하면서 불명한 것이 들어가면 그 사이에 발연히 싸워서 노하니, 또한 무슨 즐거움을 말할 수나 있겠는가?(人之所以神明, 其德應物而不窮者心而已. 古之君子自其始學, 則盡力於灑掃應對進退之間而內事其心, 既久且熟矣, 則心平而氣和, 沖融暢適, 與物無際, 其觀於一世事物之變, 蓋無往而非吾樂也. 而況載籍所傳, 上超羲農下至於茲, 其間聖賢之行事問學之源奧是非得失理亂存亡廢興之故, 包括籠絡, 靡不畢具, 苟涉其辭義而心必契焉, 則其可樂而玩也, 豈不亦至矣哉. 惟世之學者或不足

11) <주자대전> 권77 5쪽.

以如此而勞於記誦佔舉之間以爲事，是以語之至者既扞格而不入於心，惟其粗厲而不平者感而入焉，則其間勃然而興而怒矣，亦何樂之云哉。)12)

라고 하여, 학자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자기 수양이 完善해져 사물의 변화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찰되는 그것이 자기의 즐거움이 될 것이며, 書冊을 읽음에 마음이 그 의미에 契合하기를 期必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수양이 이루어지고 또한 학문의 즐거움이 반드시 이를 것이니, 학자라면 모름지기 그 깊은 뜻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耳目을 염두에 둔 읽고 외우기에만 급급해 하여서는 아니됨을 말하고 있다. 程子は 이에 대해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학습하였으나 그 끝은 남도 이루어 줌에 이르렀고,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에게 알려지기 위하여 학습하는데 그 끝은 자기마저도 상실함에 이른다.」13)고 하였는 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芸齋記>에서는

만약에 배우는 자가 農事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안팎의 구분이 확정되어 남의 밭에다 힘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가을이 되어 풍부하게 수확하여 그것을 먹게 되면, 남의 맛있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게 될 것이다.(使學者卽事而思之，內外之分定而力之所肆不於人之田矣。霜露既繁實而食之，所以不願人之膏粱之味也。)14)

라고 하여, 학자라면 모름지기 修身을 근본으로 삼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儒學은 修己와 治人을 겸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修己 이후에야 治人이 있을 수 있으니 修己는 治人の 근본이라고 할 것이다. 유학의 修己的

12) <주자대전·별집> 권7 5쪽.

13) 「古之學者爲己，其終至於成物；今之學者爲人，其終至於喪己。」<經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345쪽.

14) <주자대전> 권77. 5쪽. 주희는 이 작품에서 孟子의 「人病舍其田而芸人之田，所求於人者重而所以自任者輕。」라는 말에 의거하여 徐元聘의 田舍를 '芸'으로 命名해 주고 이어 上記의 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측면은 宋代의 理學으로 와서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자기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인 「爲己之學」이 절실히 요구되고 남에게 알려지고자 해서 하는 학문인 「爲人之學」은 철저히 배척을 당하게 된다.¹⁵⁾ 주희는 <讀唐志>에서 이르기를 「孟子가 죽자 聖學이 실전되어 천하의 선비들이 根本을 등 뒤로 하고 末로 달려가, 도를 알아 덕을 기쁨으로써 그 안을 충실히 함을 구하지 않고, 한갓 문장을 사업으로 삼음에 급급해 하고 있다.¹⁶⁾」라고 하여 當世의 선비들이 「知道養德以充其內」하지 않고 오로지 文章에만 전념한 것을 한탄한 바 있다. 여기에서 미루어 본다면, 한갓 章句의 誦說에만 종사할 줄을 알고 그리고 깊은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읽고 외우기에만 급급해 하는 자들에 대해 주희가 무슨 생각을 가졌겠는가 충분히 알 수 있겠다. 또 주희는 <答石子重>에서 이르기를 「나는 사람이 학문을 하는 까닭은 내 마음이 성인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¹⁷⁾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희가 개인의 書齋를 위한 記文에서 자기 내면의 수양을 위한 「爲己之學」을 주장한 것은 실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內面修養 이 類에 속하는 작품으로 또 <存齋記>·<復齋記>·<克齋記>·<怨齋記> 등을 들 수 있다.

2. 人物稱揚

여기에 속하는 대표작으로 <歸樂堂記>와 <味道堂記>·<通鑑室記>를 들 수 있다. 먼저 <歸樂堂記>를 보면

내가 생각컨대, 어려서 배우고 장성하여 벼슬하고 늙어서 돌아가고 돌아가서 즐겁음 常物의 大情이요 士君子에게는 꼭 같은 바의 것이다.

15) <論語·憲問> <經書>(上同) 345쪽: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16) 「孟軻氏沒, 聖學失傳, 天下之士背本趨末, 不求知道養德以充其內, 而汲汲乎徒以文章爲事業。」 <주자대전> 권70 4쪽.

17) 「熹竊謂, 人之所以爲學者, 以吾之心未若聖人之心故也。」 <주자대전> 권42 21쪽.

그러나 혹은 권세와 이익에 구애되어 고관대작에 연연하여 늙어서도 능히 돌아가지 못하고, 혹은 돌아갔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산 나머지淡泊한 생활을 싫어하고 고통스럽게 여겨 옛날을 돌아보며 마음에서 잊지 못하여 한숨쉬고 슬퍼하며 스스로 재 마땅함을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니, 어찌 돌아가서 즐길 줄을 알겠는가? 혹은 이것을 알더라도 관리로 있을 때에 한 바를 돌아봄에 마음에 몹시도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 즐기는 바에서 비록 잠시라도 편안하고 싶어도 그 마음은 진실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러한즉 벼슬하여 능히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능히 즐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朱侯는 이름이 卿子로 어려서 부터 훌륭한 재주와 學問이 있었고, 성품은 慷慨하여 在職 30년 동안에 強直으로써 스스로 나아가, 뜻한 바를 홀로 행하고 권세에 屈하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였으며 나이 5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王官에 올랐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공무가 없는 한가한 날에는 賓友에게 命하고 자식과 조카들을 따르게 하여 산에 오르고 물에 임하여 노래하고 시를 지으며 세속의 밖에서 노닐지 않은 적이 하루라도 없었고, 그리고 留落하여 不遇하다는 뜻을 조금이라도 얼굴과 말에 드러낸 적이 없었으니, 권세와 이익에 대해 어떠한 것인가? 그가 벼슬하여 능히 돌아가고 돌아가서는 능히 즐길 수 있음은 이 堂을 만물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가히 믿어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다.(予惟, 幼而學, 強而仕, 老而歸, 歸而樂, 此常物之人情 而士君子之所同也. 而或怵迫勢利, 騰騰軒冕印轂之間, 老而不能歸, 或歸矣, 而酣豢之餘厭苦淡泊, 顧慕曩昔不能忘情, 方且咨嗟感促, 自以爲不得其所, 而豈知歸之爲樂哉, 或知之矣, 而顧其前日從官之所爲, 有不能無愧悔于心者, 則於其所樂雖欲暫而安之, 其心固不能也. 然則仕而能歸, 歸而能樂, 斯亦豈不難哉. 朱侯名卿子, 少有美材學問, 慷慨入官三十年, 以強直自遂, 獨行所志, 不爲勢屈, 以故浮湛選調, 行年五十, 乃登王官. 然予視, 其簿書期會之餘日, 蓋無一日不命賓友從子姪, 登山臨水, 弦歌賦詩, 放浪於塵埃之外, 而無幾微留落不偶之意見於言面, 則其於勢利如何哉. 其仕而能歸, 歸而能樂, 不待斯堂之作而可信無疑矣.)¹⁸⁾

라고 하여, 勢利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지키던 바의 도리를 세상에서 행하고 늙음에 임하여 이제는 귀향하여 여생을 즐기려는 朱卿子라는 인물을, 주회는 자기 몸소 목도했던 사실을 들어 그는 충분히 「仕而能歸, 歸而能樂」할 수 있는 인물임을 밝히고, 勢利 등에 얽매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18) <주자대전> 권77 8쪽.

사람들과 대비시켜 稱揚하고 있다. <味道堂記>를 보면

삼가 살펴보건데, 公의 諱는 兌이고 字는 태화이다. 처음에는 남쪽 지방에서 하급관리로 근무하였는데, 때마침 馬伸이 御使로서 여러 道를 宣慰하다가 그를 한번 보고서 현명하다고 여겨 임금에게 아뢰어 그의 속료로 삼았는데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程子の 문하에서 들은 바로써 전수해주고 또 평생 出處의 大節을 상세히 告해 주었다. 馬申이 謙靜의 일로써 僻적되어 죽자 公은 귀향하여 그의 학문을 지키어 종신토록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자기를 단정히 하고 사물을 접촉하고 말을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대개 잠시라도 中庸에 의거하지 않음이 없어서 鄉人들은 그를 愛敬하여 中庸 何公으로 불렀다. 그러나 다른 경전에 있어서도 배우지 않은 바 없었고, 특히 <易>에 마음을 다하여 集傳 약간 권을 지었다. 그의 忠純篤厚한 자태와 廉精直方한 지조는 하늘에서 얻어 배움에서 이루고 안을 충실히 하고 밖을 난폭히 다스리지 않아서 입을 세상의 학자들은 아는 이가 없다. 그의 만년에 馬伸이 僞楚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일을 史書에 실리게 하니, 당시의 재상이 자기가 그 공을 독차지 못하게 된 것을 싫어하여, 公을 감옥에 가두고 모든 직위를 빼앗고서 僻적하게 하였는데, 公은 종신토록 후회함이 없이 살다가 세상을 마쳤다. 이러하였으니 그는 진실로 道를 飲食하면서 그 맛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얕이 깊었기 때문에 굳게 지키고 즐겁게 행하였으며, 즐겁게 행하였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참맛을 알아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謹按, 公諱某, 字太和. 始爲少吏南方, 會馬公以御使宣慰諸道, 一見賢之, 奏取爲屬, 因授以所聞於程夫子之門者, 且悉以平生出處大節告之詳焉. 既馬公以言事謫死, 公歸守其學, 終身不少變, 其端已按物發言造事, 蓋無食息之頃而不惟中庸是依也, 鄉人愛敬, 至以中庸何公目之, 於他經亦無所不學, 而尤盡心于易, 作集傳若干卷. 其忠純篤厚之姿·廉精直方之操得于天而成于學, 充于內而不暴於外, 世之君子莫能知也. 晚以馬公移書僞楚斥使避位之節, 列上史官, 宰相惡其分己功, 逮繫詔獄, 削籍投荒, 而終身不自悔以歿其身, 此其於道眞可謂飲食而知其味矣. 惟其知之深, 是以守之固而行之樂, 行之樂, 是以益味其腴而不能去也.)¹⁹⁾

또한 라고 하여, 자기의 道理를 굽힘없이 지키다가 죽은 何兌라는 인물을 그의 행적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稱揚하고 있다. <通鑑室記>에서는

19) <주자대전>권77 17쪽.

선비가 천하의 일을 세울 수 있는 까닭은 뜻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나 재주가 있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방법이 있지 않으면 그 재주를 도울 수 없다. 때문에 옛날의 군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겸하지 않고서 능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낸 자가 있지 않았다. 그러나 術이라는 것이 또 어찌 陰險詭仄하고 朝三暮四한 것을 이룬 것이라. 또한 處事의 방법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중룡은 성품이 강개하고 기개가 있어서 늘 옛 사람의 공명과 사업을 스스로 기약하여 세속을 따르는 그런 용렬한 짓을 하지 않았으며, 그 才器로 말할 것 같으면, 宏博할 뿐 아니라 또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니, 대개 큰 事變에 임해서는 더욱 더 정신을 차려 지휘와 처리함이 하나라도 機會에 들어맞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러하니 그 뜻과 재능을 비록 완전히 시행한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뜻과 재능에는 남음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일찍이 이것만으로 自足하지 않고, 바야흐로 또 서책을 博觀하고 經문을 확대하여 많이 기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대개 장차 옛 것을 참작하여 지금을 헤아려 더욱 處事의 방법을 다함을 구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니, 이는 세상의 學士大夫들이 옛 서책에 힘써 華靡한 것을 주워모아 대담의 자료로나 삼고 일의 실제에 시행함에 이르러서는 汎然하여 依據할 것이 없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上之所以能立天下之事者, 以其有志而已. 然非才則無以濟其志, 非術則無以輔其才. 是以古之君子未有不兼是三者而能有爲於世者也. 然而所謂術者, 又豈陰險詭仄朝三暮四之謂哉. 亦語夫所以處事之方而已矣. 張侯仲隆慷慨有氣節, 常以古人功名事業自期許, 不肯碌碌隨世俗上下, 至其才器宏博, 則又用無不宜, 蓋臨大事變而愈益精神, 指應處畫無一中機會者. 是其志與其材, 雖未盡見施設而人知其有餘矣. 然未嘗以是自足也, 方且博觀載籍, 記覽不倦, 蓋將酌古揆今, 益求所以盡夫處事之方者而施之, 非特如世之學士大夫兀兀陳編, 綴拾華靡, 以爲談聽之資, 至其施諸事實, 則汎然無據而已也.)²⁰⁾

라고 하여 志·才·術 三者를 겸비하여 세상에서 자기의 큰 포부를 펼쳐보려는 張仲隆이라는 인물을 「兀兀陳編, 綴拾華靡, 以爲談聽之資, 至其施諸事實, 則汎然無據」한 세상의 賤士들과 대비시켜 稱揚하고 있다.

古文의 한 類인 書는 고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書簡文과는 성질이 좀 다르다. 옛 사람들은 뒤에 이 書가

20) <주자대전> 권77 10-11쪽.

다른 詩文과 함께 文集 속에 정리되어 출간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私的인 것이기 보다는 公的인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²¹⁾ 書가 이런 정도이고 보면, 記의 본래 성격이 모종의 사건에 대한 경위를 金石 등에 기록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한 것²²⁾임을 감안한다면, 주희의 堂室記가 비록 堂室 居處者를 위하여 써 준 것이지만 그 공적인 성격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²³⁾ 문집 속에서의 출간 전제는 물론, 室壁에 堂室記가 걸려 있는 그 堂室을 출입하는 이가 當世의 사람들을 포함, 後人들 까지 어디 한 둘이겠는가?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內而 修養類 作品은 물론이고 상기 작품들 속에서의 稱揚도 한갓 그 개인에 한정된 칭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주희는 <論語>의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學'을 注하여 「學은 본받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본성은 모두 선하나 깨달음에는 先後가 있으니, 아직 깨닫지 못한 자는 반드시 먼저 깨달은 자가 한 바를 본받아야 만이 선을 밝혀 그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²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미루어 본다면, 주희의 칭양에는 이 당실기들을 불 不特定多數들로 하여금 본받아 배워서 善하게 하려는 이른바 「賢者를 表揚하여 俗人들을 선하게 함(表賢善俗)」의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 작품들도 내면의 수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서로 통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類에 속하는 작품으로 또 <盡心堂記>·<拙齋記>·<江州重建濂溪先生書堂記>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二者에 속하지 않는 작품으로 <高士軒記>를 들 수 있겠는데 무엇

21) 金學主 <中國文學概論>(新雅社 1984) 176-7쪽 참조

22) 金容杓 <曾鞏 記敍文을 통해 본 그 實用主義 정신>(《中國學研究》6집) 137쪽 참조

23) 이 점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 <一經堂記>의 말미를 보면 「柯君名翰, 字國材, 爲人孝勤誠懇, 介然有以自守, 於經無不學. 今將隱矣, 而其志不自足如此, 是蓋終身焉, 則其造詣之極, 非予所敢量也.」라고 되어 있는데, 柯翰만을 위해 써 준 것이라면 굳이 이런 기술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는 이미 불특정 다수를 염두에 기술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24) 「學之爲言效也. 人性皆善而覺有先後, 後覺者必效先覺之所爲,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 <經書> 53쪽.

이 高士인 가에 대해 주희와 或者가 서로 힐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V. 結論

주희의 당실기는 그의 전체 83편의 雜記文 중에서 15편을 차지하고 있으며, 잡기문의 能手로 알려져 있는 柳宗元과 歐陽修의 당실기가 5,6편에 불과한 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실로 적지 않은 편 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은, 생각컨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의 학문을 대단히 높게 여겨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겸해서 자기의 당실에 대한 記를 청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記는 대단히 公的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산문체이고, 또 朱熹 堂室記의 堂室은 거의 대부분 燕居時에 默坐하고 讀書하는 곳이다. 따라서 주희의 당실기는 내면수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한 큰 갈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갈래인 인물칭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내면 수양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記이면서도 강한 의론성을 띠고 있는 작품으로 전화되었다.

주희 당실기를 중국 산문사 상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본고의 역량이 아직은 절대 부족하여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전개된 의론은 실로 정밀하기가 짝이 없어 참고하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주희의 당실기에 대한 初探의 글이다. 따라서 미진하고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이 지극히 많다. 차후에는 미진한 부분은 물론이고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들인 주희 앞서사람들의 당실기와 비교 검토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한 詳考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 吳 訥 <文章辨體序說> 長安出版社 臺北 1978
徐師曾 <文體明辨序說> 長安出版社 臺北 1978
曾國藩 <經史百家雜鈔> 岳麓書社 長沙 1987
褚斌杰 <中國文體概論>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2
朱 熹 <朱子大全>『四部備要』中華書局 臺灣 1985
吳洙亨 <歐陽修의 記 試探> <中國文學>(韓國中國文學研究會)21집 1993
陳 來 <宋明理學> 遼寧教育出版社 沈陽 1992
柳在潤 <歐陽修의 記 考究> <中國人文科學>(中國人文科學研究會)11집 1992
陳玉卿 <蘇東坡 散文 疏探> <中國語文學>(嶺南中國語文學會)
金容杓 <曾鞏 記敘文을 통해 본 그 實用主義 정신> <中國學研究>(中國學研究會)6집
金學主 <中國文學概論> 新雅社 한국 1984
<經書><大學 論語 孟子 中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한국 1990
<宋史>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92
載 銑 <朱子實記>(中國思想叢書) 中央圖書 한국 1988